

보성 공릉공원에 '판타지 공연장' 조성

사업 최종보고회... 세계적 공통 화석지 재조명 2013년 4월 개소

보성군 '비룡 공릉공원'이 오는 2013년 4월 문을 연다. 보성군은 지난 28일 정중해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룡 공릉공원' 조성 사업 전사업추진개념방안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1·2차 보고회와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향에 바탕으로 그동안 제시된 공간 구성과 공연 및 전시 계획, 운영 및 홍보 계획 등 전사업추진개념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비룡 공릉공원'은 체험 위주의 트렌드에 맞춰 전시위주의 정적인 형태를 벗어나 '판타지 멀티미

디어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켜 타·사·군에서 운영중인 공통관련 시설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리면 비룡리에 조성되는 '공릉공원'은 지하 1층·지상 1층(총 4212㎡ 면적) 규모의 공통 전시관내에 ▲공통알·공통화석 전시실 ▲공통소 공연장 ▲공통 체험시설 ▲공통 기획전시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최대한 기술하고 환상적인 무대연출이 어우러진 종합예술공연으로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흥미와 감동을 줄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공통관련 전시시설로 세계적인 공통알 화석지인 보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중생대 공통시대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교육과 과학의 산 교육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연소 부문은 백악기에 있는 듯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연출하는 실감나는 입체영상과 움직이는 관람석과 스크린, 다양한 특수효과 장치 등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배우들의 역동적인 연기와 첨단 로봇기술로 재현한 대형 로봇공룡을 등장시켜 환상적인 신세계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관

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신개념 퍼포먼스형 판타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공통관련 전시시설 문화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미 공룡이 알을 낳는 모습을 이미지화해 전시관 입구를 연출한다. 보성에서 산출된 공통 화석 및 공통알 화석의 전시 공간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공통알 화석지로서 보성을 알릴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시설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 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지리산 야생화 원추리 꽃길 거닐어보세요

구례군이 지리산의 대표적인 야생화인 원추리 꽃길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즐기는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구례군생활체육회(회장 한상욱)는 오는 8일 오후 6시 구례읍 서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원추리 꽃길 걷기행사'를 연다.

이번 걷기행사 코스는 서시천

구례군 8일 걷기대회

정장~서시교 3.5km

체육공원 야외무대를 시작으로 정장교~백로정~서시교 등 3.5km에 이른다. 서시천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5.5ha에는 90만본의 원추리가 식재돼 있다.

지리산 노고단의 대표적인 야생화인 원추리는 기온차가 있어 7월 말에서 8월초가 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서시천 체육공원 일대는 서시천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갖춰 원추리 꽃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최고의 구간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광양 종마파출소 베스트 파출소

광양경찰서 종마파출소가 지난해 10월, 12월에 이어 올 5월 등 3회 연속 '골드 베스트파출소'로 선정됐다.

종마파출소는 지난 28일 '베스트 파출소' 인증패를 부착하고, 경사 강대중·이재금, 순경 백운산 등 유공 경찰관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중요 범인·수배자 검거와 예방 활동 실적에 우수한 지역경찰을 선발해 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뚝은 감·매실 명품 농산물로

멜론·토란·한우·들깨 이어 선도품목 선정 내년부터 158억 투입 1400ha 집중 육성

곡성군이 멜론·토란·한우·있들깨 등 4대 품목에 이어 뚝은 감과 매실을 명품 브랜드 농산물로 육성한다.

곡성군은 지난 27일 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곡성농업 선도품목 선정과 명품브랜드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군은 매실과 뚝은감을 선도품목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158억원을 투입해 매실 900ha, 뚝은감 500ha를 집중 육성한다.

군은 그동안 멜론·토란·한우·있들깨를 집중 육성해왔다.

이 가운데 멜론은 일본 수출에 이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돼 올해 총소득 100억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국 최대생산지인 토란과 있들깨 역시 가뭄에도 작황이 좋아 올해 많은 소득이 예상된다.

군은 이들 4개 품목에서 2014년 2010년 대비 94% 이상 증가한 537억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연초부터 이들 품목을 특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연작피해와 토양관리, 미

생물 사용에 관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과 소통을 위해 농민상담소를 운영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명품 생산에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로 개척을 위해 의정부시와 자매결연하고 구리 농수산물공사와 유통교류를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주력했다.

하남시 곡성군수는 "농업인구의 급감과 고령화를 대비하고 토양과 기후 변화,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품목을 지정해 곡성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선택과 집중투자자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 '돈 버는 상업농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철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 등록 추진

대표 브랜드로 독점 권리 확보 소득 증대

순천시가 하반기에 지역 특산인 철쭉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대표브랜드로서 '순천철쭉'의 품질과 명성을 적극 홍보하고 독점 배타적 상표권 획득을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이 해당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

하는 경우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신청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생산, 가공자 단체로 대상자는 순천철쭉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

시는 상표 출원을 위해 '순천철쭉 영농조합법인'을 신청자로 선정하고 지난 28일 단체표장 지원사업 운영업체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으로 ▲순천철쭉의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지리적 요인의 관련성 ▲국내외 인지도·역사성 ▲단체구성 및 관련 컨설팅 등을 추진, 오는 11월에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국내외적인 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 북



순창 블루베리 품평회

순창군은 지난 30일 구림면 석골 소득개발시험포에서 블루베리 연합작목회원과 어린이체험단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베리 소비확대를 위한 품평회를 가졌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lhee@

신체에 직·간접 고통 행위 금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입법예고 교사에게 정치적 간섭·압력 받지 않을 권리 부여

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인권 조례안)과 전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 조례안) 등 2건을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를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두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51개 조항 2개 부칙, 교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 관련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는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복장과 두발 등 몸모양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야간자율 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등 교원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학동 이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 조례안 입법 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 문의·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읍발전 미래전략 기획단 출범

교수 등 29명 자문위원 위촉

정읍시가 중·장기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 자문을 할 '미래전략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정읍시는 지난 29일 도내외에서 활동하는 산업·관광·문화·과학·환경분야의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의 미래전략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

자문위원단에는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인 박삼욱(65·지리학과) 교수가, 지역자문단장에는 한국전통식

품화회장을 지낸 신동화(68) 신동화 식품 연구소장이 선임됐다.

미래전략자문단은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에 부응하는 과제 발굴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또 시책 수립 때 전문정보·자료를 제공하며 시정 자문도 맡는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각계 전문가가 행정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스포츠 인프라 대폭 확충키로

새만금 시대를 맞아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군산시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팔을 걷어붙인다.

군산시는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스포츠 발전계획을 수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까지 '군산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영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 ▲군산시의 스포츠 정책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의 활성화 ▲스포츠 특성화 사업 정책방향 ▲미래 스포츠형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여름 휴가철 전북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공원관리소, 내장산 등 8곳 야영장 개방·생태 탐방

전북권 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피서객을 위해 야영장 개방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권 국립공원은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번산반도 등 8곳의 야영장을 개방하고 덕유산에서는 '금강모치가 사는 무주구천동 이야기'와 '항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란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도 대어해준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김용무 소장은 "국립공원별로 가족단위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뜻깊은 휴가를 보내고 싶은 가족은 전북권 국립공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주 덕진수영장 빠르면 20일째 재개장

전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3년째 폐쇄된 덕진수영장을 이르면 7월 20일째 재개장할 계획이다.

1991년 개장했던 덕진수영장은 2008년 11월 보일러실 폭발 사고가 난 뒤 철거하기로 했으나 정동영 의원 등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재개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최근 13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왔다.

전북도 소유로 그동안 전북도 체육회가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주시가 무상 임대 형태로 이를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방축도 야생초공원 행안부 시책으로 개발

군산시 '방축도 천연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201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시책사업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최근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성숙해진 방축도의 주민역량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한 자연인

화적 개발 컨셉 등을 구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축도는 2009년 '쌍기리 달샘마을 가꾸기 사업'이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정읍 보건소 모범음식점 68개소 새로 지정

정읍시 보건소가 모범음식점 68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에 대한 음식업소의 동참을 유도, 활성화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하고 영업시설 개선 자금이나 육성자금을 연 3%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대표축제로 마실축제 최종 선정

부안군은 지난 29일 대표축제 운영 보고회를 열어 지역을 대표할 축제로 '부안마실축제'를 선정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관광공사의 김석 차장은 "마실축제는 관광·역사·문화자원, 깨끗한 환경, 잘 보존된 지역 등 다양한 소재를 아우르고 지역 알리기에 용이하다"

며 주민과 전문가들도 '마실'을 적합한 소재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마실은 '이웃에 놀러 간다'는 뜻으로 마을간 교류, 이웃간 화합, 가족간 소통을 의미하며 마실축제는 도시를 떠나 현실을 일탈하고 오감·관광을 체험하는 의미를 담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